

# 빛가람 혁신도시 최고 불만은 ‘교통’

공공기관·주민 정주여건 건의사항 ...안전·문화·교육 順

도서관 추가 설치·상업지역 축소 등 입주민들 민원 쇄도

광주·전남이 공동조성한 빛가람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 및 거주 주민들은 교통, 안전·환경, 문화·체육, 교육 순으로 불편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그러나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거나 기관 간 협력이 전제되는 사항 등에 있어서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추진 속도가 더더욱 일부 불만도 나오고 있다.

지난 2014년 말 구성된 빛가람혁신도시 공공기관장 협의회에 따르면, 20일 현재까지 논의된 정주여건 개선 건의사항은 모두 34건이다. 이 가운데 12건이 교통 관련 분야였으며, 안전·환경(8건), 문화·체육(5건), 교육(3건), 기타(6건)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이들 건의사항들은 광주시, 전남도, 나주시는 물론 광주시교육청, 전남도교육청, 경찰서 등과 연관된 것으로, 현재까지 완료가 19건, 수용 및 정상추진이 8건, 검토 및 협의중이 3건, 수용 곤란이 4건 등이 다.

과속방지 카메라 설치, 혁신도시 내 신호주기 조정 등 비교적 손쉬운 것은 마무리가 됐지만 문제는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이나 공사다. 석전교차로(빛가람로) 진출입로 확장, 공용주차시설 부족 등은 일단 나주시가 수용해 추진할 예정이다. 택

시·대리운전 요금 적정화, 시외버스 노선 및 편수 다양화, 나주시내~혁신도시 간 시내버스 증차 등은 완료됐으나 계속 추진된다.

혁신도시 ~ 광주 간 공동지원체(통합학군제) 도입, 혁신도시 외곽도로 터널형 경관 조성, 빛가람건강생활지원센터 방문설비 추가 설치, 나주시 주택구입 및 임차대출금 이자 지원기간 확대 등 4건은 나주시 등 관계기관이 난색을 보여 추진이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검토중인 사안은 아름다운 간판 만들기 추진, 변압기 이전 설치 등이다.

협의회 내에서 공공기관들이 제기한 문제 외에 도서관 추가 설치, 상업지역 축소 등 1만2000여명에 이르는 입주주민들의 민원도 쇄도하고 있다.

지난해 빛가람혁신도시 이주한 이모씨는 “두 아이의 엄마인데 편의시설이 없어 많이 불편한 실정”이라며 “도서관이 지어지고 있지만 아이들이 문화체험을 하고 책을 읽으러 다니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시설”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 밖에도 빛가람혁신도시 내 상업지역이 너무 과다하게 지정돼 있다는 목소리도 높다. 유흥시설은 물론 불법 광고물까지 곳곳에 들어서면서 '명품도시'의 이미지를 실추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전남도 관계자는 “공공기관 근무자는 물론 거주주민들의 민원이 많지만 이를 모두 충족시키기에는 상당한 예산과 기간이 소요되는 것이 사실”이라며 “장·단기별로 시한을 정해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나주 빛가람혁신도시 주민등록 인구는 지난해 말 현재 1만2452명으로, 분기별 평균 24%의 인구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이 가운데 나주를 제외한 타지역에서 전입한 인구는 1만140명(81%)이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아들 뺑소니 뒤집어쓰는 엄마  
엇나간 母情 ▶ 6면

광주·전남  
자동차 150만대 시대 ▶ 14면



광주로 띄우는 그림편지  
문명호의 '베네치아' ▶ 18면



한파에 숨어 6만여마리 떼죽음

전남도의 낚시꾼들이 영하 5.4도를 기록한 20일 영광군 백수읍 한 숨어 기가두리 양식장에서 양식업자 김동중(68)씨가 폐사한 숨어떼를 물채로 건져내고 있다. 김씨는 이날 숨어 6만마리(1억3000만방) 상당어가 폐사했다고 주장했다. 최근 숨어 영하의 강추위에 숨어가 얼어죽은 것이 아닌가 하고도 정확한 원인을 조사 중이다. 전남과 이남 광주·전남 평균 겨울은 영하 7.3도·영하 4.4도 평년보다 6.2도·2.4도 각각 낮았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 “국보위, ‘5·18 광주’ 빨갱이 때도”

국민의당·DJ 측근 인사들

## 김종인 '국보위 참여' 비판

국민의당과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 측근 인사들이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선거대책위원장의 ‘국보위 참여’ 전력을 비판하고 나섰다.

더민주를 탈당하고 안철수 의원이 추진 중인 국민의당에 합류한 임내원 의원은 이날 국민의당 첫 의원총회에서 “더민주의 김 위원장 영입은 광주가 중시하는 민주와 가치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쓴소리를 했다. 그는 “김 위원장은 1980년 신군부 국보위에 참여하는 것으로 정권권 첫발을 내디뎠다”며 “국보위는 광주 학살 직후인 5월31일 만들어지고, 전두환 신군부는 김대중 대통령에게 9월17일 사형을 선고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이런 상황에서 김 위원장은 국보위 재무분과위원으로 참여해 ‘국무총리실 신군부’의 호감정치에 들어갔다”고 했다.

김대중 정부 시절 문화관광부 장관을 지낸 김대중여가테마 김성재 원장을 각 위원장의 국외활동논란과 관련, 의심발단을 쏟아냈다. 그는 이날 논평을 통해 “더민주 문재인 대표와 소속의원들은 끝내 역사의 죄인이 되려 하느냐”며 “김 위원장은 5공 신군부 국보위원이었다. 국보위는 광주 5·18민주화운동을 뺀가이 폭도 매대하고, 신군부를 정당화했고, 불법으로 삼청교육관을 만들어 수많은 국민의 인권과 자유를 유린하고 목숨까지 빼앗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문 대표와 소속의원들은 끝내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역사의 식도, 영혼도 없는 국보위 당원이 돼 역사의 죄인이 되려느냐”라고 덧붙였다.

한편 5·18 민주항쟁 구속자동지회는 21일 광주시의회에서 김 위원장의 국보위 활동과 한상진 교수의 이승만 국부론 발언과 관련, 더민주 문 대표와 안 의원의 정계은퇴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연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 2019 세계수영대회 준비 돌입



직원 15명 지원단 가동

## 4월 동아수영대회 개최

광주시가 2019세계수영선수권대회 개최 준비에 돌입했다.

광주시는 직원 15명으로 구성된 2019 세계수영선수권대회 지원단(단장 송승종)을 최근 구성, 가동을 시작했다고 20일 밝혔다.

지원단은 오는 6월까지 조직위를 꾸린 뒤 하반기에는 사무국을 구성하기로 했다. 수영 경기장 인프라 점검과 노후우 축적 을 위해 오는 4월 중 남부대학교 국제수 영장에서 동아수영대회도 개최한다.

지원단은 대회 준비를 위해 발주한 용역(2019세계수영선수권 대회 경기장 등 기본계획)의 납품기일을 애초 6월에서 3월로 앞당겼다. 용역에는 실내에서 펼쳐지는 경영과 야외 경기로 치러지는 오픈 워터

수영장 등 인프라 구축방안이 담긴다.

시는 세계수영선수권대회(월드 챔피언십)를 마치고 곧바로 마스터스선수권대회를 치르거나, 챔피언십 후반에 마스터스를 개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국가대표 선수들이 출전하는 국제경기와 각국 동호인들이 참여하는 경기를 순차적으로 지리 대회 개최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다. 경제적인 면에서도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019년 7~8월 사이 열릴 예정인 세계수영선수권 대회는 전문 수영인들이 참석해 경연하는 월드챔피언십과 수영 동호인이 참가하는 마스터스선수권대회로 나뉘어 진행된다.

송승종 세계수영선수권대회 지원단장은 “대회를 규모있게 치르면서도 재정부담을 줄여 성공적인 대회로 이끌기 위해 지혜를 모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지금 경험할 수 있는 미래  
The E-Class

Mercedes-Benz

메르세데스-벤츠 공식딜러 신성자동차㈜  
신성자동차(주) 광주·경지점  
광주광역시 서구 삼정대로 1041번지 / Tel. 062026-0001

경부상행 표준 연비 및 평균 : E 200 1,991cc, 1,698kg, 7G-TRONIC PLUS, 복합연비 12.0km/l(도시연비 10.5km/l, 고속도로연비 14.6km/l), 5단급, 배출CO<sub>2</sub> 배출량 145g/km • E 250 BlueTEC 4MATIC 2,143cc, 1,935kg, 7G-TRONIC PLUS, 복합연비 14.1km/l(도시연비 12.4km/l, 고속도로연비 17.0km/l), 5단급, 배출CO<sub>2</sub> 배출량 140g/km • E 300 3,498cc, 1,790kg, 7G-TRONIC PLUS, 복합연비 9.7km/l(도시연비 8.4km/l, 고속도로연비 11.9km/l), 4단급, 배출CO<sub>2</sub> 배출량 188g/km • E 300 4MATIC 3,498cc, 1,960kg, 7G-TRONIC PLUS, 복합연비 9.1km/l(도시연비 8.0km/l, 고속도로연비 10.9km/l), 5단급, 배출CO<sub>2</sub> 배출량 196g/km • E 350 BlueTEC 4MATIC 2,967cc, 2,045kg, 7G-TRONIC PLUS, 복합연비 12.6km/l(도시연비 11.2km/l, 고속도로연비 14.7km/l), 5단급, 배출CO<sub>2</sub> 배출량 150g/km • E 400 4MATIC 2,996cc, 1,933kg, 7G-TRONIC PLUS, 복합연비 9.3km/l(도시연비 8.1km/l, 고속도로연비 11.3km/l), 5단급, 배출CO<sub>2</sub> 배출량 190g/km • E 63 AMG 4MATIC 5,461cc, 2,020kg, AMG SPEEDSHIFT MCT 7-speed, 복합연비 7.2km/l(도시연비 6.5km/l, 고속도로연비 9.3km/l), 5단급, 배출CO<sub>2</sub> 배출량 230g/km ※ 본 연비 테스트는 2009 연식기준으로, 연비, 주행거리 및 배출량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연비 자료)에 실려 있음.